

지역 건설사들, 재개발·재건축 눈 돌린다

서진·영무토건 등 5~6곳, 정비조합 등과 물밑 접촉

교통·학군 강점… 산수등 등 낙후 구도심 개발 기대

정부의 재건축 완화 정책과 분양가 상한제를 타고 지역 중견건설사들이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눈을 돌리고 있다. 그동안 수익성이 낮아 외면했던 지역 재건축 시장에 건설사들이 앞다퉈 뛰어들면서 동구 산수동과 계림동 등 낙후된 구도심이 활기를 찾을 것이라는 ‘장미빛 전망’도 나온다.

13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지역 중견건설사 5~6곳이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이미 진행중이거나 정비조합 등과 물밑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견건설업체인 서진종합건설은 서구 쌍촌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에

마지막 인준 절차만 남겨 놓은 상태다.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알려진 쌍촌 주공아파트는 서진의 ‘엘리제’ 브랜드로 지어지며 기존 300가구가 602가구로 재건축된다.

금호건설은 북구 풍향동 풍향2구역을 재개발한 ‘풍향동 금호어울림’을 11월에 선보인다. 960가구 규모이며 전용면적 59~84㎡ 51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향토업체인 영무토건도 가세했다. 지난 8월 말 648가구 규모의 대구 용두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는 등 전국구 재건축 업체로 성장한 영무토건은 현재 광주 및 전주의 재개발·재건축 조합

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중이다. 영무는 재건축분야에서 수도권과 경북, 전북을 중심으로 5개의 재건축사업에 참여해 사업을 성공시킨바 있다.

이외에도 ‘진아리제’로 알려진 진아건설과 ‘골드클래스’를 브랜드로 쓰는 골드클래스㈜ 등이 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중견건설업체가 재건축 사업에 눈을 돌리는 이유는 최근 광주지역 주택시장이 호황을 이루면서 구도심에 대한 지역민과 지자체의 관심이 몰리기 때문이다. 외곽 택지와 달리 도심은 교통이나 학군, 편의시설에 강점이 있다.

정부가 최근 재건축 완화 방침을 밝힌 뒤 광주에서만 7000여 가구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보태고 있다. 여

기에 정부 방침에 따라 새로운 택지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데다, 수년 새 광주의 분양가가 꾸준히 상승해 시공사들이 수익을 담보할 수 있게 된 점도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지역 건설사 관계자는 “2년 전만 해도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주민 이주비 등 사업비 소요가 커 대기업 건설사가 아니면 진출하기 힘든 시장이었다”며 “하지만 재개발에 관심이 높은 지역이 많아지면서 지역 건설사가 진입할 수 있는 중소형 단지가 늘어나는데다, 낙후된 도시를 개발하려는 지자체 시책과 지역민의 관심이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주택 정비사업은 주택 재개발 30개소, 주택 재건축 18개소가 추진중에 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코스피 1920선 추락… 7개월만에 최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코스닥도 3% 넘게 하락

유럽 등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동반 추락했다. 특히 코스닥시장은 투매성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4% 가까이 급락, 연중 최고 낙폭을 기록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인 7거래일째 순매도해 ‘셀 코리아’를 이어가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13일 코스피는 지난 주말보다 13.71포인트(0.71%) 내린 1927.21로 마감했다. 이는 지난 3월 20일(1919.52) 이후 7개월 만에 최저치다. 이날 지수는 21.44포인트(1.10%) 하락한 1919.48로 출발, 장 시작과 함께 1920선이 붕괴했다가 낙폭을 줄여나갔다. 코스닥지수는 투매성 물량이 쏟아져 나

오면서 전날보다 21.64포인트(3.89%) 내린 534.31로 마감했다. 낙폭은 올해 들어 가장 큰 것이다. 이날 지수는 6월 11일(533.30) 이후 4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두 지수가 이처럼 동반 추락한 것은 달러와 강세, 삼성전자 실적 충격 등으로 증시 환경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유럽 경기둔화 우려가 투자심리를 위축시켰기 때문이다. 또 경기도 연천 지역에서 남북 간에 총격전이 벌어지며 긴장이 고조된 것도 증시에는 악재였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은 “대내외 악재로 악재장이 얼마간 지속할 것”이라며 “외국인의 매매패턴 변화를 꾸준히 점검하면서 개별 실적 위주로 선별적 대응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사업체 과다 자영업, 과잉경쟁·수익률 하락 불가피

산업연구원 전망

국내 자영업이 사업체 과다에 따른 수익률 하락으로 향후 비중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3일 산업연구원이 내놓은 ‘자영업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이 집중된 국내 5대 산업(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업, 개인서비스업, 제조업)의 경우, 선진국과 비교시 사업체가 과도하게 많아 자영업의 과잉 경쟁 및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주요 선진국의 자영업자 비율(취업자 대비 비율)을 보면 2013년 기준 미국 6.5%, 일본 8.8%, 독일 10.7%, 영국 14.2%로, OECD 회원 34개국 평균은 14.9%다. 이는 오랜 기간 하락해 안정적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반면, 국내 자영업자 비율은 1963년 37.2%에서 1983년 33.8%, 2003년 27.3%, 2013년 22.5% 등 선진국에 비취볼 때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보고서의 의견이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13.71포인트(0.71%) 내린 1927.21로 장을 마감한 13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코스피 1927.21 (-13.71)

금리 2.26%

코스닥 534.31 (-21.64)

환율 1067.90원 (-2.60)



콜핑·비티알, 국제스포츠클라이밍월드컵 후원

아웃도어 전문브랜드 ㈜콜핑과 콜핑이 새로 론칭한 콜프웨어 비티알(BTR)은 지난 10~12일 목포에서 열린 ‘2014 국제스포츠클라이밍월드컵 대회’를 공식 후원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IFSC)과 (사)대한산악연맹이 주최하고 전라남도산악연맹이 주관한 이 대회에는 오스트리아·벨기에·프랑스 등 총 25개국 200여 명의 선수와 임원 등이 참여했다.

《사진》 박만영 콜핑 회장은 “등산 문화와 익스트림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

다”며 “콜핑 제품이 익스트림 스포츠에도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토종 브랜드로 1983년 설립된 콜핑은 ‘콜핑이면 충분하다’는 구호 아래 뛰어난 품질과 기능, 디자인을 앞세워 국내 아웃도어 시장에서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매장 360여개, 중국에서는 80여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매출액은 2500억을 넘어설 전망이다. 2018년까지 ‘글로벌 아웃도어 톱5’로 성장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효성, 한강 세빛둥둥섬 ‘세빛섬’으로 이름바꿔 15일 개장

한강 반포대교 남단의 수상 컨벤션 시설인 세빛둥둥섬이 ‘세빛섬’이라는 새 이름으로 15일 전면개장한다.

13일 운영사인 효성에 따르면 ‘세 개의 빛나는 섬’이라는 뜻의 세빛섬은 총 연면적 9995㎡ 규모로, 컨벤션센터와 카페 등이 있는 가빛섬, 레스토랑이 있는 채빛섬, 수상 레저시설이 들어올 솔빛섬으로

구성됐다. 세 섬 중 가장 큰 가빛섬은 콘퍼런스, 패션쇼, 결혼식이 열리는 700석 규모의 수상 컨벤션센터로 레스토랑, 카페 등으로 꾸며졌으며 채빛섬은 한강을 보며 공연과 식사가 가능한 공간으로 17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솔빛섬은 전 시공간과 수상레포츠 지원시설 등 복합 문화공간이다. /임동률기자exian@

금호타이어, 소음 줄인 ‘공명음 저감 타이어’ 개발

금호타이어가 제품 내부에 흡음재를 부착,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인 ‘공명음 저감 타이어’를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

13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이 타이어는 흡음재 형상 및 재질을 최적화한 ‘케이-사일런트 시스템(K-silent system)’ 기술을 적용, 트레드 내부에 다공성 폴리우레탄 폼(흡음재)을 부착시켜 소음을 감소시켰다. 자체 비교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기존 프리미엄 제품 대비 8% 정도의 소음이 줄었다. 공명음이란

타이어 바닥면과 도로 노면 간 접촉으로 인해 타이어 내부의 공기가 진동하여 발생하는 소음이다.

타이어 업계는 최근 타이어와 도로 노면 간 발생하는 소음을 실내 유입 소음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소음 저감 기술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컨티넨탈과 피렐리 등 해외 유수의 업체들도 흡음재를 활용한 소음 저감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부동산 경매

- ▶특수 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배우면서 투자 가능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등 집기 제공
사용료 연 1200만원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

공동 투자자 모집

- 1억원 이상
- 연 수익률 20%이상 보장
- 소유권/근저당 으로 보장